

지역주택조합 흔드는 ‘조합 사냥꾼 주의보’

착공 직전의 조합 노력 중간에 사업 가로채는 전문사냥꾼 ‘활개’ 광주 송정리버파크 업무대행사 교체...담양서도 분쟁 계속 갈등 고소·고발 난무속 공기 지연...사업자 간 다툼에 조합원들만 피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간에 가로채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나타났다. 주상이 나와 광주·전남 지역주택조합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일명 지주택 전문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주로 토지매입과 조합원 구성을 완료한 사업장의 조합을 흔들어 업무대행사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 조합 측과 전문 사냥꾼 측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은 특수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압류가 들어가면서 착공이 늦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이자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담양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조합의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합원 2명은 지난달 “G개발이 비대위원장 등과 짜고 조합을 가로채려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합 측은 “일명 조합사냥꾼으로 불리는 G개발

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며 “현재 30억원 가량의 압류를 진행해 G개발이 사업을 뺏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막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잘못들은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조합원을 선동해 G개발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며 “조그만 잘못을 커다랗게 만들고 기존의 업무대행사를 쫓아내고 G개발이 조합을 통째로 차지하는 신종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측은 주택법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재 고소된 상태”라며 “양심선언한 2명은 조합 측에 회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의 조합원 모집 분양률은 96%, 토지매입률은 98%로,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석현도동지역주택조합도 2019년께 G개발

로 업무대행 역할이 교체됐다. 당시 조합의 토지매입률은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합 관계자는 “당시 업무대행사가 업무를 못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고, G개발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G개발로 업무대행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G개발 관계자는 “우리가 전문가로 소문이나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감사업무를 맡게 됐고, 그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적발해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조합 업무를 맡게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사업자 간 다툼이 계속되면서 결국 조합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경 입장에서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만큼, 조합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물의 날 기념 환경 정화활동 영산강유역환경청과 OB맥주, 코카콜라, 삼성전자 직원들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 숲 생태습지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

광주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광주시 간호사회 회원들과 간호법제정추진법국민운동본부 회원 100여명은 22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세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3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을 앞둔 데 따라 열린 집회로,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힘이 제21대 총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시로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5월 17일 간호법 등 법안을 이우 없이 법안의 무덤인 제2법안소위로 회부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결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합심해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영장 출입금지구역서 추락사

수영장 외부 출입금지구역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수영장 바깥에서 A(여·22)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수영장 외부에 설치된 채광·환기시설로 지상에는 추락을 막기 위해 1.5m 높이의 울타리와 안전그물, 출입금지 표지판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A씨가 그물 위에서 뛰놀던 중 그물이 찢어져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의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 대접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송치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1일 김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교수가 단기계약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경찰,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압수수색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사무실 내 단기계약 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대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심의를 거쳐 조선대 교수평의회 내 임원인 A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A교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행정 직원 B씨로부터 A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업무시간이 지나서도 B씨에게 전화·메시지를 수신차레 전송해 부

당하게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센터는 아직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A교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정되면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무마 고액 수입료’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액 수입료를 쟁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2억8000만원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고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입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입했고, 약정한 수입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